

자료제공 : 2024. 1. 22.(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관리부

요금관리부장	김 분 숙	02-3146-1601
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계측관리과장	이 호 완	02-3146-1250
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2쪽
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s://arisu.seoul.go.kr">https://arisu.seoul.go.kr</a>
--------	---

### 서울시, 22일 올해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...집 비올 땐 물 졸졸졸 들어야

- 23일(화) 최저 기온 영하 14도, 수도계량기 동파 '경계 단계 발령'...24시간 비상 근무
- 지난 12월 동파 3단계 8일간 수도계량기 동파 9백여 건 발생...전체 건수 대비 50%
- 이번주 내내 한파 지속...장기간 외출 시 수돗물 틀어 동파 예방 조치
- 동파 신고는 다산콜(120), 관할수도사업소 신고 또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

서울시는 22일(월) 18시부터 25일(목) 09시까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'동파 경계'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. 이 기간 동안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보됐다.

○ '동파 경계'는 '관심-주의-경계-심각'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,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.

시는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 11월 15일부터 현재(1월 22일)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1,827건이며, 지난 12월 동파 대책 3단계(12.17.~12.24. 8일간) 동안 전체의 50%인 91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.

- 이처럼,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.
  -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. 일 최저 기온이 0도~영하 10도 이하 일 때는 45초,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.
  -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,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-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.
-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(챗봇) ‘아리수톡’, 서울시 다산콜재단(☎120번)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.
- 한영희 서울시아리수본부장은 “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 동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.”라면서, “각 가정에서도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말했다.

별첨 관련사진 1부.